

구독 예찬



신상연

벤처나라

간 밤에 폭 잤다. 쿠쿠에서 렌탈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삼성전자 AI 구독클럽에서 선택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다. 화장실로 이동해 코웨이 비데를 이용한다. 매일 구독하는 경제신문이 오늘도 현관 앞에 배달 왔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일종의 대중교통 구독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를 개찰구에서 찍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퇴근 후에는 월 이용권을 구입한 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리쏘 안마의자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본다. 물론, 안마의자도 렌탈 프로그램으로 이용 중이다. 이번 주말에는 롯데렌터카 G 카 정기구독 서비스로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를 다녀올 생각이다.

요즘 필자의 일상을 한 번 풀어봤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써보니 평소에는 크게 못 느꼈지만 구독경제가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참고로 필자는 구독경제 예찬론자다.

구독·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초기 비용 부담이 없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침대, 냉장고, 비데, 자동차 등을 구독이 아니라 구매를 했다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서 품목의 절반 이상은 경험조차 못했을 거다. 적은 비용으로 최신 편의기능을 이용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구독·렌탈 서비스의 두 번째 장점은 정기적인케어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지나도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사용이 아닌 소유, 즉 구매를 선택했다면 제품 관리는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구독·렌탈 서비스는 계약 기간 동안 제품 관리까지 해준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을

넘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경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식당 렌탈창업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 곳을 낸다는 건 큰 모험이다.

매장 임대료 외에도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보안장비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등 비용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구매 대신 구독·렌탈로 전환하면 가맹점주가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조금씩 비용을 낼 수 있다. 가맹본사 입장에서조차 창업 문턱이 확 낮아져 신규 가맹점주 모집이 수월하다.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서로에게 윈윈이다.

소유에서 사용으로, 구매에서 구독으로 소비 트렌드는 변하고 있다. 항상 큰 흐름의 변화 속에는 성공의 기회가 숨어 있다. 예비 벤처·스타트업 창업가들이여, 프랜차이즈 렌탈창업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아이템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

/㈜프리핀스 대표

21세기형 매국노



기지수첩

서예진
(정치부)

기자의 고향은 강릉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그곳 맞다.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다. 경포해수욕장 옆엔 경포호도 있다. 둘 다 물인데, 눈앞에 보이는 게 물인데, 쓸 수 없다. 마실 수도 없다.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었을 거다.

가뭄이 심하다보니 지자체장에 대한 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는 ‘가뭄도 홍수도 나랏님 탓’과 같은 사고(思考) 회로지만, 일부는 정파적 시각을 빌어 비판했다. ‘기우제 지내는 것도 싫다. 비오면 시장이 기우제 지낸 덕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느 시민이 물었다. “혹시, 강릉 사람 맞아요?”

위에 언급된 주장들은 전형적으로 정파에 눈이 가려진 사례다. 삶의 터전이 메달라가는데도 상대 정파의 지자체장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의 유지가 아닌 이들이다.

동네를 벗어나 전국 단위로 가보자.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무난한 타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이상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밤중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역시 이재명을 혼내주는 트럼프’ ‘트럼프 잘한다. 이제 윤석열을 구하러 와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혈맹’이라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려, 한마디로 ‘도와주려’ 왔던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보통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의 빠른 해결, 그리고 이들의 빠른 귀환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게 누가 불법으로 가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혼내주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잡아갔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조지아주 사태도,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던 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듯 숨었다. 보통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떠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전모가 파악되거나, 해결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나 ‘통쾌함’이라는 감정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21세기형 매국노이자, 해방 후 친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2025년에 매국노라니, 참으로 신선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한국 사람 맞아요?”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7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엇그제인데 새싹이 나기 시작. 48년생 인생의 최고 선물은 건강. 60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72년생 오늘은 황금색상이 행운을. 84년생 집을 잡혀주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테니.



37년생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니 낙락장송의 성성문이 생각. 49년생 11시 건널목 조심. 61년생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73년생 형제가 늘 우물 아래 돌을 떨어뜨리는 격으로 방해만. 85년생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38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성취시킨다. 50년생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가. 62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걸어라. 74년생 덧없는 한 때의 꿈을 꾸어보는 것도 젊음. 86년생 재개발단체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39년생 사랑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51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 설득. 63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75년생 이른 아침부터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게 되니. 87년생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40년생 인천에서 친구가 찾아온다. 52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6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림. 76년생 노심초사한 결과가 아주 좋게 마무리된다. 88년생 배우자의 부채로 집을 떠나 살아야 하니 가슴 아프다.



41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53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5년생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77년생 창업하기 전에 경험자를 찾아가면 지혜가 생긴다. 89년생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자.



42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54년생 결혼은 내 뜻대로. 66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78년생 임금 뒷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이다. 90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린다.



43년생 생일이라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55년생 일도 많지만 즐거움 하루이다. 67년생 사랑과 믿음은 상관관계이니 함께하는 약속. 79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91년생 사돈댁이 집안을 쥐고 흔들어도 내 팔자소관.



44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56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68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라. 80년생 오늘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솟아날 구멍은 있다. 92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45년생 뒤늦게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57년생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69년생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재물이 늘어날 수밖에. 81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9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46년생 기술을 배우다가 지친다고 포기말라. 58년생 견딜 수 없는 슬픔도 세월이 가면 희석이 된다. 70년생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면 보답이. 82년생 자기의 능력은 헤아리지 않고 질책하는 상사에게 감정폭피 말도록. 94년생 오전부터 행운.



47년생 자녀 혼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59년생 상대에게 막대한 희망을 주지 마라. 71년생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83년생 오늘 비가 온 다 해도 가져야행은 출발이다. 95년생 갈수록 조상님 은덕이 각골난명刻骨難忘이다.



김상회의四季

명당과 혈자리

풍수지리라고 하면 명당을 먼저 떠올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여긴다. 틀린 말은 아니나 풍수지리는 단순하지 않다. 동양의 삶과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자연의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철학적 사고가 융합된 이론에 가깝다. 명당은 좋은 기운이 모여 자연의 환경과 인간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혈자리는 명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은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이며 길지를 뜻한다.

혈은 명당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운이 응집하는 정점에 해당한다. 명당이 땅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면 혈은 그 기운이 몰려있는 곳이다. 명당과 혈을 찾으려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주변 산세와 물의 흐름을 봐야 하고, 공간이 향하고 있는 방위, 땅의 질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혈은 인체의 경락과 비슷하다. 자연의 생기가 흐르는 주요한 지점으로 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곳이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속에 흐르는 기운이나 에너지가 모이는 경로를 용맥이라 하며, 명당이나 혈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용맥이 힘있게 내달리다 멈춰 선 지점, 그 기운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혈이 만들어진다. 혈중에서도 진혈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가 그 첫 번째다. 뒤로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감싸듯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상을 말한다. 더해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혈을 보호해야 한다. 혈 자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터를 명당이라고 하고 내명당과 외 명당으로 나눈다. 내명당은 무덤이나 건물의 바로 앞을 말하고 외 명당은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7	6	8	2	1	9	9
6	8	2	9	8	9	1	1	7
9	9	1	1	7	8	2	6	8
1	9	9	7	7	2	8	8	8
8	6	8	1	9	7	9	2	1
9	2	8	9	6	1	1	7	8
7	7	1	8	1	8	6	9	9
2	1	6	2	9	9	8	9	1
8	1	9	8	1	6	9	7	2

7	8	1	9	6	8	2	9	9
9	2	9	8	1	7	1	8	6
1	1	8	6	8	9	2	7	9
6	7	1	8	9	1	9	8	2
1	8	8	2	9	1	9	6	7
9	9	2	7	8	6	8	1	1
8	9	6	2	1	1	7	9	8
2	9	1	1	7	8	6	9	8
8	6	7	9	2	9	8	1	1